

일본 지진(24.1.1), 우리나라 지각변동 영향 없어

- GNSS 위성기준점으로 지각변동량 분석... 1cm 이내로 종전 속도와 유사

<보도 내용 (연합뉴스, 1.2) >

◆ 국토지리원 “지진 여파 노토반도 끝 중심부 1.3m 서쪽 이동”

- 노토반도 끝 중앙부의 해안 마을인 와지마(輪島)시가 서쪽으로 1.3m(잠정치), 주변인 아나미즈마치(穴水町)는 약 1m, 스즈(珠洲)시는 0.8m가량 각각 서쪽으로 이동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지각변동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동남부 12개 위성기준점**의 일 단위 위치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 지반에 단단히 고정된 위성기준점의 위치변화를 분석하여 지각변동량을 계산하는 시스템

** GPS, GLONASS 등 항법위성 신호를 상시 수신하여 정밀 위치좌표를 확인한 측량기준점

○ 우리나라는 연간 약 3cm의 일정한 속도로 남동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진 전후인 12월 31일 ~ 1월 2일 사이에도 오차범위 1cm 이내에서 지각변동량이 종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정밀한 위성궤도*가 발표되기 이전 계산한 추정값으로, 향후 정밀 궤도를 반영하여 mm단위의 정밀도로 계산하면 지각변동량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GPS 등 항법위성의 정밀 궤도는 발표될 때까지 약 20일이 소요

□ 일본 국토지리원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가 1.3m 가량 서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으나, 진앙으로부터 거리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각변동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송시화 과장은 “지진 등에 따른 국토의 위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공간정보 구축과 각종 국토 개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한 측량의 위치기준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책임자	과장 송시화 (031-210-2603)
		담당자	사무관 문지영 (031-210-2650)

